

여성위원회총회주간

the
other

I LOVE A WOMAN

여성의 주변성이
가지는 힘POWER

제2대 이화여성위원회(건)

여성위원회총회주간

I LOVE A WOMAN

여성의 주변성이
가지는 힘POWER

제2대 이화여성위원회(건)

I LOVE A WOMAN

제1대 여성 위원회 위원장
사회복지학과 92 조 혜 련

난 여자다. 그래서 난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안다.

여성은 언제나 사회의 주변에서 타자화된 존재로 살아왔다. majority가 아닌 minority, 즉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삶이 바로 여성의 삶이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주변성을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고 권력자 남성에게 정면 도전하면서 기득권을 나누어 갖자고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중심부에서 자기 기득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남성이 자신의 기득권을 여성에게 '평등'과 '수평'의 개념으로 분할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며, 중심을 선망하여 공격해 들어가는 지금까지의 여성들의 전략은 오히려 남성들의 정치적인 의도에 말려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이다. 지금까지 여성들은 '여성의 주변성'이 가진 긍정성과 힘을 기반으로 운동하기 보다는 주변에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불평등을 드러내면서 중심으로 가기 위한 운동을 해왔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주변성이 가진 힘과 긍정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성이 가진 주변성은 중심과 수직적이고 위계적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그 주변성은 더이상 결핍이나 열등성으로 간주되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주변부에서 살아옴으로 해서 가지게 된 잠재적 의식과 덜 오염된 눈이라는 삶의 체험적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중심으로 가 있던 우리의 시선을 이제부터 주변인인 여성에게 돌리자. 우리는 여성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나는 여성이며 나의 여성성을 사랑한다'에서부터 시작하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이 아닌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발상과 힘을 가지는.....그것은 부정적이었던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바꾸게 할 것이다.

여신이 되기보다는

문화평론가/게이운동가
서 동 진

이대 여성위원회가 두들을 맞는다. 내가 알고 있는 이대 여학생위원회 친구들의 노고는 그 무슨 말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값진 일이었다. 여자대학이라는 교육제도의 성별 속에서 그들이 지녀야 했던 모호한 위치는 이제 그들에게 더 이상 굴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다행이고 아름다운 일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신의 시녀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여성들이 되고자 하여왔다. 더 이상 현숙한 여성이지 않고자한 이 숙녀의 적들에게 내내 축복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이대는 근대사회로서의 한국에 기입된,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약한 여성의 위치를 가져왔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여자대학인 이대가 근대사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위치를 쟁취하고 또 스스로 제한했던 제도가 아니었냐는 말이다. 여성의 교육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성차에 따라 구별된 한 사회적 주체, 즉 여성이라는 성별화된 인간의 삶을 재현하는데 기여하고 또 배반하였던 장치. 그렇다면 이대는 여성이라는 이름 밑에 딸린 수많은 의미의 식물들을 잉태하고 출산하였으며 또 길렀고 잃었을 터이다. 그 과정에서 근대사회의 입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사회적 의미를 정의하였던 신여성으로서의 여성에서부터 지금 이 세기말의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이대는 여성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에 답하고 또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대치시키면서 오랜 시간을 건너왔다.

나는 이대 여성위원회의 두들이, 그 얽히고 꼬인 여성의 역사들의 꼬트머리, 여성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성운들 속에 자리할 따름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 자리는 그 자리만큼의 값어치가 있다. 자신을 타자로 보지 않아도 되는 위험과 행운이 동거하는 공간으로 이대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위치를 끈덕지게 되물고 물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대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은 도대체 어떤 여성이며, 저 바깥의 여성들과 어떻게 긴장을 혹은 연대를 취하고 있느냐는 질문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대는 성별화된 세계에서 자신의 여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정의하라는 주문에 시달려왔다. 그 질문은 그 자체로는 어떤 옳고 그름이 없다.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은 다르다. 그들은 그 질문에 답하는 와중에 자신들의 차이를 변성시키고 그 차이를 조정하며 여성으로서의 많은 위치들을 창설하고 또 뛰어짜게 된다. 나는 이대 여성위원회가 했던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여성의 주체를 정의하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지난 봄 고대 학우들의 집단 성희롱사건에 대한 여성위원회의 개입은 바로 그런 실타래를 풀어헤치고 또 그렇게 골라낸 실가닥들을 엮어, 자신들의 육체와 건강, 안전과 행복에 대한 여성의 윤리적 천을 짜는 일이었다.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여성의 언어를, 신음과 외마디비명 혹은 들리지 않은 웅얼거림으로부터 끄집어낸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든 것에 작용하는 성별화의 힘을 제기하고 또 여성의 위치를 모든 자리에서 회복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그 모든 것에서 여성의 주체를 인식하고 정의하며 입법하고 판정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생산하고 동시에 제한하며, 빠져나가며 동시에 붙박힌다.

하지만 이대 여성위원회는 그 일을 떠맡아야 한다. 그들은 모든 여성의 이름으로 말해지는 여성의 불행, 그리고 그것을 실토하고 부인하는 여신이 아니라 저 많은 여성들의 차이를 뿔 수 있는 수만개의 실가닥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해석적 위치에 놓는 해석자, 자신을 저항되어야 할 위치에 놓는 저항자로서의 힘이 이대 여성위원회에 있어야 한다. 이대 여성위원회는 그렇지만 더이상 여신의 사제들이 아니다. 그들은 미혼모와 레즈비언과 성희롱당한 여성과 부르주아의 처와 여성노동자와 위안부와 현모양처를 자신들의 여성의 위치들 속에 기입하고 그것을 해석하며 실천할 각오였다. 나는 여신을 꿈꾸지 않고, 제 자신을 이질결합시키는 이 어리석은 여성들에게 무한한 애정과 연대를 느낀다. 설령 그들에게 내 페니스와 내 남성성이 위험하더라도 말이다. ▼

이화 여성위원회의 위상

이화에는 여성에 대해 고민하는 다양한 공간이 있다. 공교육의 장인 학교에는 여성학과와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있고 다수 교양과목이 여성학으로 정리되기도 하며 아예 여성학 계열로 개설되는 과목들도 심여 가지나 된다. 학생들의 단위에는 학회 소모임으로서의 여성 학회와 학생회 안에 집행부로 여성부가 있다. 이외 그리고 외부 단체와 함께 활동하는 모임들도 상당수 존재하는 가운데 이화 여성위원회가 두학기에 걸쳐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 안에서 이화여성위원회가 가지는 차별성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화 내에서 여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들에 대한 대답이 이화 여위의 위상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으리라.

한마디로 하면 이화 여성위원회는 '이화 내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견지하면서 여성운동을 펼치는 단위'가 될 것이다. 학문보다는 실천, 즉 운동을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여성학과 계열과 차이가 있으며, 학생회 운동의 어떤 맥락보다도 '여성'에 최우선을 둔다는 것. 즉 '여성'이라는 주제를 부문운동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총체로 바라보고 활동하는 단위라는 것이 변별력을 부여해 줄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 여위가 활동을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변하지 않을 이화 내에서의 위상일 것이다.

이화는 여성운동에 있어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고 우리는 믿고 있다. '여성운동의 메카' 이것이 우리가 부르고 싶고, 불린다고 생각하고, 불렸으면 하는 '이화'이다. 그런데,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다. 진정 '이화'가 여성운동의 메카라고 불릴 만했는가. 단지 남학우들이 없어서 잔디밭에 누워도 아무 거리낄 것이 없고 김밥을 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 생활상의 편리함만으로는 여성운동의 메카가 될 수 없다. 또한 여성학 수업을 수강하는 것만으로 여성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 또한 이화 내에선 정말 위험한 착각이다. 우리는 이화 여성운동의 현실을 직시하고자 한다. '여성운동의 메카'라는 공허한 말을 실제로 만들기 위해 이화 안팎을 뛰어 다니는 일...이를 자처하는 이화 여성위원회가 될 것이다.

이제 잠시 그 구조를 들여다 보자. 우리는 여성운동의 지속성과 질적 비약을 위해 내부적인 연속성을 갖추나갈 수 있는, 그리고 독자적인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위원회 형식을 구성했다. 단절 없는 고민을 이어나가 그 역사를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구조...이는 허울만 좋은 여성운동의 메카 이화에 절실히 요청되는 형식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회의 골간라인 속에는 과·단·총 그리고 총련까지의 위계구조가 존재한다. 이런 구조 하에서 언제나 '사적이고' '일상적인' 여성의 문제는 언제나 부차적인 문제로 밀려나 버리기 십상이었던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오천명의 젊은 여성들이 집중되어 있는 공간으로서의 이화에 대한 기대(스스로이건 주변에서건)를 지고 나가는, 그리고 산발적인 여성에 대한 고민을 항시적으로 묶어주고 엮어나가는 센터역할을 할 대표 단위의 필요성이 요청된다. 셋째, 언제나 사건중심적이었던 여성문제 접근, 억압에 대한 기존 접근 방식에서 방향전환하여 여

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 자생성을 형성시켜나가는 새로운 급진적 페미니즘의 움직임 (Lesbianism?)까지 폭넓게 인식하는 새로운 여성운동 인자들이 재생산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이화 여성위원회가 1년간 활동하면서 얻은 활동 속에서 어느정도 도출된 방향성이기도 하다.)

이화 여성위원회는 단지 여성운동이나 여성학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자족하고 마는 그런 단위가 아니다. 여성위원회는 이화 내의 여성운동을 선도적으로 고민하고 활동하는 집단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이 '여성'으로 고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찾아올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또한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와 문제의식을 같이하는 다른 학교의 단위와의 연계도 이미 일어나가는 중이다.(들꽃모임) 하지만 학생회 단위처럼 상하조직구조의 위계질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단위...아직 그 상이 명확하게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수평적 연계망을 통한 권위적 위계질서의 해체를 지향하는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여성에 대해 끊임없이 얘기하고, 여성이기에 행복할 수 있는 골수 여성 집단 (Radical Feminist?!) 이화 여성 위원회로 끈질지게 존속하길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여성 위원회의 체계

여성위원회의 체계는 Open & Close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동적이고 사회적 담론을 가지고 있는 부서는 존재하지만 부서와 부원이라는 수직적인 체계를 여성위원회에서는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서로는 신문 기사 중심의 인쇄매체를 전달해서 정리하고 컴퓨터 통신을 담당할 시사부와 내부적 세미나나 커리를 준비하고 외부적 주제로론 준비를 하는 교육부, 여성단체(여연이나 정대협 등)와의 연대와 외부와의 교량역할을 할 연대사업부, 여성문제 등의 주제를 시기별로 잡아 행사를 기획하는 문화부의 4개의 부서와 연대사업부 일을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위원회를 관리할 위원장과 회계 등의 내부적인 일을 맡아볼 부위원장의 체계로 정해졌다. 그리고 4가지의 부서 이름이 너무 남성적인 느낌이 있어서 여성성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단체들의 체계는 부장 밑에 정해진 부원들이 있는 반면 여성위원회에서는 어떤 시기의 특정한 행사를 담당하는 부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부원이 되는 구조로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 96년 다시 보기 *

1월

- 「페미니즘 이론 사전」 국내 첫 출판.
"사전은 권위라는 특수역할을 담당하므로 그 안에서는 여성이나 소수민족들이 흔히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 용어 발명 이상의 무언가의 가능성을 기대하며.....

2월

- 대우조선 용역여사원 고용의 불합리한 고용정책으로 존속 및 직급 체계가 없는 근로 계약 항의에도 노조의 공식공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3월

- 제5차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보고서 작성. 'military sexual slavery'로 피해여성을 규제하고 법적 책임 및 자료 공개, 개개인에 대한 공식 서면 사과, 등을 일본정부에 권고.
- 3.8 세계여성의 날. 88들을 맞아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5개 시민단체가 제12회 한국여성회 기념 등 다양한 행사.
- 내신 남녀 분리상정으로 구정고등학교 성차별 파문.-->남녀통합 내신제에 대한 사전예고를 2학년학생들에게부터 가정통신으로 예고하기로 방침.
- 성폭력특별법 첫집 또 드러나. 계부가 의붓딸을 성폭행해도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성폭력특별법의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여성계는 특별법에 성폭력을 정조에 관한 죄가 아닌 성적자기 결정 침해권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친고죄 폐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 곧 개정작업에 들어갈 것이라 밝히고 있음.

4월

- 태인여중 김교사 성폭행사건 김교사, 학생들 등교 거부로 직위해제; 성폭행 피해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박탈하는 처사이며 학교측의 재량남용이다.

- 각당 전국구 당선권에 여성9명 공천; 신한국 15%할당, 국민회의 25%여성할당 공약실천 자민련 10번이내 여성 후보 한명도 없어.....

- 여성농민연구소 발족(3.21) 기념 토론회; "여성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라."

- 성폭행법 살해 여성에 '무죄'선고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홍분으로 인한 과잉방어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제 21조 3항에 의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5월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안 곧 입법 예고.
- 5.18 16돌 '오월여성제' 망월동 묘역에 여성열사 분향소 설치.
- 진주 삼일유치원 성추행사건
유치원 원장이 여교사에 지속적인 성추행. 진주시 여성 단체 대책위 구성, 원장은 맞고소.
- 미인대회 폐지론
여성계는 여성을 성적인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미인대회 폐지를 주장. 문민정부가 들어 서고 지방자치가 도래한 현 시점에서 마땅히 미인대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

6월

- 안산 우성 유치원원장 성추행사건
이 성추행은 2,3년 전부터 계속 되어온 것이며 피해 학생들도 남녀 구별없이 100여명을 넘어 설 정도이다. 피해 아동들의 증언에 의하면 올해 3월부터 예절교육시간에 아이들을 3,4명 불러 들여 차례로 옷을 벗겨 성추행한 다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을 강요해 왔다고 한다. 피해학부모들은 20일날 공동대책위원회를 열어 정원장의 법정최고형처벌과 유치원 폐쇄,타유치원예의 분산 수용,피해 학부모들의 정신적 보상들을 요구하기로 했다.
- 신양중학교 교장성추행
황교장은 주로 자신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 혼계를 준다는 명목으로 교장실에 불러 문을 잠그고 성추행을 자행해온 혐의를 방도 있다.13일날 학부모들이 고소하자 15일날에 황교장을 맞고소를 했다.황교장은 "실력 없는 교사들이 자신을 음해하

려는 행위이며 전교조의 모함이다.명찰을 달지 않았다고 해서 가슴을 조금 만진 것이 어찌 성추행인가"라는 말을 하고 있다.

• 성폭행 여중생 출산

27일 서울 s여중 3학년 생 모양이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양수가 터져 병원에 옮기던 중 남아를 출산했다.학교측에 따르면 모양은 지난해 10월경 동네 골목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 그 사실을 숨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모양은 내성적인데다가 임신사실이 알려지면 퇴학을 당할까 두려워 복대로 복부를 가려왔다.

• 초등학교 상습 성폭행 사건

7월

• 여성발전기본법 시행

정무 제2장관실이 마련한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또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이 의무화 되었고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는 등 노력을 보였으나 여성발전기본시책에 대한 언급의 포기과 입법 예고기간 중 의견의 수렴이 안되는 등 비판의 여지가 있다.

• 여성주간

정무 제2장관실은 여성발전기본법제 14조 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선포했다. 이 주간에는 생명존중을 주제로 여성발전과 남녀 평등 촉진에 대한 행사를 마련했다.

• 주부 매매춘

이들은 아이들의 과외비 호기심과 무료함 등을 이유로 시작하였다. 파트너 이벤트라는 회사가 이를 담당하여 주부의 학력에 따라 화대를 결정한 뒤 시내 여관과 호텔을 지정했다. 22일 서부지원 극결심판(판사 김정학)에서 윤락행위를 한 주부 2명에 대해 7일 구류,상대남자 9명에 대해 구류 3일의 판결이 내려졌다.

8월

• 제2차 동아시아 여성포럼

8월 22일부터 타워호텔에서 한국, 중국, 일본, 필리핀, 몽고, 타이완 등 7개지역 4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한국여성 NGO의 주최로 열렸다.

정신대 문제, 고용안정, 인권 세 부문의 핫이슈와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종교와 문화, 환경과

개발, 경제 및 개발, 여성에 대한 폭력, 평화운동 등 6개의 워크샵을 벌여 워크샵별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위안부문제를 특별결의안으로 별도 채택하였다.

• 한총련 여대생 성희롱 사건

연세대에서 한총련 학생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전경과 경찰이 여대생을 성추행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측은 "경황이 없어 진상을 조사할 여력이 없다.수많은 학생들을 연행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학생들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9월

• 이기순 사건

7일, 스티븐(22,미군제2사단 2여단 보병)이병은 새벽 4시 40분에 술에 취해 인근 유흥가 이씨 셋방에 찾아갔다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씨가 면박을 주자 경분해 이씨를 때려 실신시키고는 흉기(연필깎는 칼)로 목을 세차례 찔러 두동강 내고는 살해하였다.

• 가정폭력방지법 최종확정

24일 범국민운동본부가 시안을 최종 확정했다. 10월 안으로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처벌 위주의 법이 아니라는 점과 관련자들의 신고 및 사법 경찰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그 특징이다.

10월

• 서울대 우조교 성희롱 사건-1일에 대법원에 여성계 의견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의 달

• 국정감사

9일 내부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새정치 국민회의)의원은 연대시위 연행과정 또는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 시위 여학생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발언을 하여 여야 공방을 제기했다. 의원의 품위 문제로 저지를 받았으나 인권침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추의원은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다.



초청강연회

최근 여성학의 쟁점과 여성주의 윤리학

지난 11월 2일 법정 강당에서는 아시아 여성학 센터에서 주최하는 '최근 여성학의 쟁점과 여성주의 윤리학'이라는 이름의 강연회가 있었다. 이 강연회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Ann Ferguson과 Alison M. Jaggar이 초청 강사로 참가했었다. 물론 강사가 여자였으니 우리 대부분 "우와, 영어 진짜 잘한다..."라고 감탄을 하며 앉아 있기는 했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이란 기존의 다른 이론들이 한두 가지 정도의 개념을 사용해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를 끼워 맞추는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한 개의 개념 밑에 마르크스적인 안목 뿐만 아니라 급진적, 정신분석학적인 통찰력들을 수용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전혀 별개의 전통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는 않지만, 그리고 어느 페미니스트라도 다양성을 희생해 가면서 통일성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지만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도전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사회주의 페미니스트인 Ann Ferguson과 Alison M. Jaggar의 생각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까? 아래의 내용들은 그날 나눠준 자료집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이다.



페미니스트 철학의 쟁점과 전망

-- Ann Ferguson

대학의 밖에서 투쟁하는 페미니스트 활동가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과 여성학 교수들 학계의 페미니스트 이론 논쟁을 지배하는 비생산적인 대립을 참기 어려워한다. 사실 전통적인 학문 분과에 반대되는 여성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강점은 더 많은 여성학 교수들이 대학밖에 있는 여성들을 포함하는 정치운동에서 활동적이면 활동적일수록, 그 운동 속에서 생겨나는, 힘을 빼는 이분법적 대립 속에 빠지는 것을 더 잘 피할 수 있게 된다. 페미니스트 유물론자로서 나는 평등과 차이 사이의 논쟁, 여성들 사이의 공통성 대 차이 논쟁, 모더니즘/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을 포함한 이러한 많은 대립들을 변증법적 대립이라고 생각한다. 변증법적 대립을 딜레마 중 어느 것이 더 옳은 편인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들은 정치 투쟁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반영한다.

우리가 사회 지배 체계에 관한 페미니즘의 복수 체계 이론을 적용시켜 전지구적 자본주의라는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논쟁들을 본다면, 우리는 일국의 여성운동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론화할 수 있다. 그리고 여성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통합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해서 우리는 국제적 여성운동의 발전에 의존해야 한다. 여성들은 일국의 가부장제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자본주의 및 백인 우월주의의 경제구조에 의해 영속화되는 계급, 인종, 신제국주의적 착취를 통해서도 희생자가 되었다. 그러나 여성들은 또한 이 모든 체계들에 저항하는 지속적인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실천을 계속하고 있다. 대체로 학계에서는 아직 충분히 성찰되지 않고 인간 평등과 인권의 개념들이 이러한 저항의 공간에서 확장되고 재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확장된 평등과 인권의 개념들은 그것이 발전된 지역의 맥락을 그 지역의 고유한 방법으로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지역의 맥락과도 연계될 수 있는 일반화의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페미니스트 연구와 여성학의 새로운 국면이 열망하는, Angela Miles가 '통합적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는 '대립물의 통일'을 어렵듯이나마 보기 시작한다. 통합적 페미니즘은 상이한 종류의 페미니스트 지식 생산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것은 국가적인 것이 아니라 지구적인 지식생산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즉 각 지역의 고유한 페미니즘을 가진 여성들이 참여하는 지역적 사회운동에 기반을 둔 지식생산으로부터, 그리고 동시에 저변 조직에서 활동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구체적 관심을 추상화하는 학계 이론가와 연구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에 기반을 둔 지식생산으로부터 통합적 페미니즘이 나올 것이다.

21세기를 향한 페미니스트 윤리학

-- Alison M. Jaggar

'페미니즘'을 단순히 여성의 예속을 종식시키고자 하는 사회운동으로 정의한다면 어떤 사람의 눈에는 '페미니스트 윤리학'이라는 표현이 모순적으로 또는 편향적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페미니스트 윤리학이 무엇을 도덕적으로 허용되는가에 대한 특수한 교리로 구성되어있으며 핵심적인 도덕적 개념과 도덕성의 본성에 대해까지도 확실히 다른 이해로 구성되어 있다고 잘못 가정하고 있는 것이다. 페미니즘은 단지 윤리학 내에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편견에 도전하기 위한 페미니스트적 결의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실천적 차원과 이론적 차원 양쪽 모두에 작동한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기본 가정은 여성의 예속이 도덕적으로 그르다는 것이며 이론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부분의 사회는 지배적 이념체계 속에 반영되고 합리화된 형태의 남성 지배로 특징지어져 왔다는 것이다.

1960년대를 서구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철학적 기본 개념들을 이용해 페미니즘을 세워가는 철학이 페미니즘을 돕는 시기였다고 본다면 1980년대부터는 많은 승인된 도덕적 개념들이 남성 편향적이기 때문에 재사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페미니즘이 철학을 돕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서구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회복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사실상 여성적 도덕적 체험에 대한 페미니스트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해서 그 결과 현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실천윤리와 이론 윤리학 양쪽의 이슈에 대하여 광범위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서구 도덕이론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은 명시적인 여성의 비하, 여성의 이익에 대한 무관심, 여성의 문제에 대한 경시, 여성적인 것에 대한 가치절하, 남성체험에 대한 규범화라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한다.

이에 대한 방향으로 서구 페미니스트 윤리학은 다양한 유형의 철학적 반응들을 채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반응들에는 여성들(또는 페미니스트들)을 도덕의 전문가나 권위자로 인정할 것, 여성의 이익을 우선으로 놓을 것, 이른바 여성문제라는 것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 남성의(혹은 남성적인) 자리에 여성의(혹은 여성적인) 가치를 대치할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의 체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설명을 추정해낼 것 등이 속한다.

비록 서구 페미니스트가 처음에는 유럽 계몽주의의 도덕적 비전과 이론적 자원에 의존했었다 할지라도, 페미니스트 윤리학의 최근 경향은 계몽주의적 도덕 사유에 도전하는 철학 전통을 승인하고 원용한다. 이러한 전통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윤리학, 마르크스주의, 실리분석학, 실용주의, 공동체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속한다.

페미니스트 윤리학과 비페미니스트 윤리학 간의 지속적인 대화는 아주 풍부한 결실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되어 진다. 페미니즘은 도덕이론에 대해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었고, 동시에 실천적 윤리에서의 많은 논쟁들을 풍부하게 했으며 또 확대시켜 왔다.

들 꽃 모임

Q1> 들꽃모임.... 모하는 댜감? 그 실체를 밝혀다오.

들꽃모임은 대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문제제기하기 위해 모인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지난 5월 이화 대동계에서 벌어진 고대생들의 집단적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모임에서 발전된 모임은 현재 대학 곳곳에서 나타나는 왜곡된 성인식과 그로 인한 성폭력들을 밝혀내고 여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모임 초반에는 여성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실험적 형태의 문화제일라 운동으로 시작했었으며(여성과 미술, 여성과 락..) 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는 '수다모임'과 현 세계에 존재하는 남성중심적 언어주조를 극복하는 비언어적 소통의 기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는 대안적 여성주의 문화의 발굴, 그리고 대학사회에서 어떻게 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 등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피크닉과 소모임 제안, 자료집에 대한 토론 등 여러 끝에 현재는 수다모임과 여성문화관 기획이라는 형식을 동적인 구조로 묶어내는 틀로 정비해내고 난 후, 지금은 11월초 이대에서 열리는 '대학내 여성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대토론회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후 11월30일 토요일은 들꽃모임 주관 일일호프가 열 것이며, 겨울방학 중에는 우리가 애초에 모였던 첫 취지인 '대학내 성폭력'이란 주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하여 우리의 내용이 담긴 자료집을 발간할 준비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성이 여성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모든 일과, 가부장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모든 일에는 불을 켜는 무서운 단위...사실은 이게 들꽃모임의 실체가 하는데... 글썽요!?!?)

Q2> When? Where? How? Now? After? 등등...

모임은 매주 목요일 6시반(시간 지킴시당) 이대 앞 '피어라 들꽃'이라는 찻집에서 있으며, 입장료는 4000원입니다. 이곳에서는 대부분이 실명 대신 애칭을 쓰니 미리 준비해 오시면 좋습니다. (다같이 모여 Brain Storming 끝에 애칭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close모임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매월 마지막 여성문화기획안이 열릴 때 모임을 open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전 비밀인데...이제 조금씩 서로서로에게 애칭을 느껴나가는 것 같아 들꽃모임의 향후 전망은 '밝음'인 것 같습니다...(실부른 판단일까요???)

Q3> Who?

현재 서울지역 6개 대학교(이화여대여성위원회,동국대총여학생회,한양대여성위원회,연세대성정치위원회[the other],성균관대총여학생회,서울여대여성학회[날개달기]) 여성주의 관련 활동가들이 주축 멤버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심과 열의가 있다면 개인자격으로도 참여가 물론 가능하합니다.(음...애칭의 예로는 은초,팬싸,라호리,별,짜꾸리,이다,분다,누드,레드,가봉,뿌리,루근이,희,우주,라니,조아,모기,여울,강가,날송,개토,단무지,다시,줄마,파폴,뽕,당근,청록,동그리,치코,강지...이외에도 빼먹은 사람이 있으면...흑...미안하네여. 아니, 왜 가명? 비밀이 많냐구요? 크크...좋자녀요~)

K대생 집단난동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결과

지난 9월 30일부터 여성위원회에서는 K대생의 난동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한 중간 평가를 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여성위원회 위원들이 단대(인문학부, 법대, 가정대, 사과대, 상경대, 음대, 미대, 약대, 공대, 동아리), 교양과목 수업별로 배포했으며 500부 배포 후 수거된 364부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화인 대다수가 K대생 집단 난동에 대해 알고 분노하고 있었으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었다. 이 것만으로도 우리는 K대생 집단 난동이 그들의 말처럼 많은 이화인들이 오기를 바래서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영향에 대해 사회의 관심거리라는 항목에 가장 많은 수가 응답을 한 것에서 K대생 난동 사건이 이제까지는 두 학교간의 문제로 다뤄지다가 올해부터는 좀 더 사회적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는 의미로 단지 어느 한 학교의 래프닝 차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대사회적인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펼쳐야 하는 의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 문항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이 사건을 통해 이화인의 성의식을 재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대부분의 이화인은 고대측의 문제 해결 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해결 방법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법적 책임 및 배상 요구"라는 항목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더 이상 성폭력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집단 역시 그들을 왜곡되게 이끌어간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고 있다.

거의 과반수의 "이화인들이 이 사건을 '여성 공간에 대한 집단적 성폭력'이라고 응답 하였는데 이는 이화인들에게 K대 사건의 심각성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성비하적발상이 전제되었다.'와 '성차를 이용해 저질러진 폭력'에 동의하는 것에서 K대생의 집단 난동을 단순히 한 학교가 다른 학교에 저지른 폭력 사건이 아닌 남성 중심적인 학교가 여성 자치 공간인 여학교에 던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이화인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난동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본 사람은 극소수였으며 그 수준은 약화되거나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이화인이 참여하는 사건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많았다. 다시 재발시 강력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었는데 결국 이 문제는 사회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된다. 하지만 "지킴이의 강화"라는 항목에도 몇몇 이화인들이 응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이 사건은 지킴이의 손에만 맡겨서 될 문제는 아니란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우리는 적어도 이화 안에서만큼은 이제 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이 아닌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올해는 시간

이 흘러 많이 가라앉았다. 그러나 내년에 그들이 한 번 오지 않는다고 해서 10년 넘게 지속되어 온 K대생 집단 난동이 빚어낸 모든 문제가 깨끗이 정리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과 다시는 이런 난동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다. 또 난동 근처에 깔린 이 사회 의식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문제 제기 또한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총학생회와 여성위원회 등의 단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인식하고 변화시켜야 할 문제이다. 앞으로 이화여성위원회는 단기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서울 시내에 있는 10여 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모임인 들꽃모임을 통해 이 사건을 비롯한 학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해오고 있다.

이화여성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이기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끈질기게 많은 이화인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신데렐라

그날 옛적에, 신데렐라라는 젊은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낳은 생모는 신데렐라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몇년 뒤에 아버지는 과부와 재혼했는데, 계모는 신데렐라보다 나이가 많은 두 딸을 데려왔습니다. 계모는 신데렐라를 몹시 구박했고, 외붓 언니들은 신데렐라를 마치 무보수 하녀처럼 마구 부려먹었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집에 초대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자축하기 위해, 왕자가 가장무도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데렐라의 외붓언니들은 궁전에 초대되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값비싼 드레스를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그 옷을 이용하여 타고난 몸매를 비현실적인 여성미의 기준에 맞추도록 억지로 바꾸고 예측시킬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별나게 못생겨서 이 기준과는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더한층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계모도 무도회에 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개보다도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 표현은 불행히도 종차별적이지만 적절한 비유입니다).

무도회 날이 오자, 신데렐라는 계모와 외붓언니들이 야회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만만찮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비인간 동물시체의 가공육 10Kg을 5Kg들이 소시지 자루 속에 억지로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에는 엄청난 양의 화장품을 먹지먹지 찍어바르는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입니다.

저녁이 오자, 계모와 외붓언니들은 신데렐라에게 집안일을 다 끝내놓으라고 이르고 궁전으로 떠났습니다. 신데렐라는 슬펐지만, 훌리 니어 (페미니스트이며 좌익계 포크송 가수:역주)의 레코드를 듣는 것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하루는 그들의 집에 초대장이 날아들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농민들에 대한 착취를 자축하기 위해, 왕자가 가장무도회를 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니, 험령한 무명옷을 입고 생 넓은 모자를 쓴 남자가 신데렐라 앞에 나타났습니다. 신데렐라는 그가 남부 출신의 변호사나 악단장인 줄 알았지만, 그는 곧 자기 신분 을 밝혔습니다.

"안녕, 신데렐라. 나는 너의 수호천사란다. 네가 원한다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해도 좋아. 그런데 무도회에 가고 싶다고? 아름다움에 대한 남성들의 개념에 속박당하고 싶다고? 혈액 순환을 차단할 만큼 몸에 꼭 끼는 드레스 속에 네 몸을 억지로 쑤셔 넣고 싶다고? 뼈의 구조를 망가뜨릴 하이힐 속에 네 발을 억지로 집어넣고 싶다고? 비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화장품을 네 얼굴에 바르고 싶다고?"

"네, 그래요."

신데렐라는 당장 대답했습니다.

수호천사는 긴 한숨을 내쉬고, 그녀에 대한 정치적 교육은 다른 날로 미루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술을 부려 신데렐라를 아름답고 눈부신 빛으로 감싼 다음, 눈감 박할 사이에 궁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궁전 밖에는 수많은 마차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차를 여럿이 함께 타고 온다는 생각은 누구의 머리에도 떠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곧이어 노예 말들이 힘겹게 끄는 황금빛 마차를 타고 신데렐라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몸에 꼭 맞는 비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 비단은 아무 의심도 하지 않는 누에한테서 훔친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는 진주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 진주는 열심히 일하는 무방비 상태의 진주조개한테서 강탈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생각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발에는 아름답게 깎은 크리스탈 유리로 만든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가 들어가자, 무도장에 있던 사람들의 머리가 일제히 그녀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비 인형 같은 여자를 이상적인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들은 그 이상형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신데렐라를 뿔여지게 바라보며 욕정을 불태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을 경멸하도록 길들여진 여성들은 시샘과 적개심이 뒤섞인 눈으로 신데렐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신데렐라의 계모와 외붓언니들은 질투에 눈이 먼 나머지, 신데렐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남성들의 개념에 속박당하고 싶다고? 혈액 순환을 차단할 만큼 몸에 꼭 끼는 드레스 속에 네 몸을 억지로 쑤셔 넣고 싶다고? 뼈의 구조를 망가뜨릴 하이힐 속에 네 발을 억지로 집어넣고 싶다고? 비인간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한 화장품을 네 얼굴에 바르고 싶다고?

미침 창시합과 곰 놀리기(곰을 묶어놓고 개를 덤벼들게 하는 구경거리:역주)에 대해 친구들과 의논하느라 여념이 없던 왕자도 곧 신데렐라를 알아보았습니다. 무도장을 둘러보던 왕자의 눈이 신데렐라의 자태를 재빨리 포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순간, 왕자도 거기에 있던 대다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동안 말문이 막히는 일종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왕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야말로 내가 아내로 삼아 우리 왕가의 완벽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자손을 수태시킬 만한 여성이다. 그리하여 주위의 모든 왕자들이 나를 부러워하게 만들 수 있는 여성이다. 게다가 저 여자는 금발에 하얀 피부와 푸른 눈을 갖고 있다!'

왕자는 무도장을 가로질러, 점찍은 희생자를 향해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친

구들도 신데렐라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도장에 있던 다른 사내들도 70세 이상의 노인과 음료를 시중드는 급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녀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소란에 기분이 우울해졌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곳곳이 쳐들고 걸으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여성처럼 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이 추악한 것, 적어도 사회의 역기능을 갖고있는 무언가로 변질되고 있다는 사실이 곧 분명해졌습니다.

성적 욕망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다른 사내들이 당장 왕자를 붙잡았습니다. 왕자는 수많은 인간 동물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광포하게 표출되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질겁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남자들을 때어 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때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왕자는 그 젊은 여성을 '소유하겠다'는 결심을 친구들에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왕자의 결심은 친구들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들도 신데렐라에게 욕정을 느낀 나머지, 그녀를 소유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내들은 소리를 지르며 서로 밀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와 가장 절친한 친구는 두뇌 발달이 좀 뒤떨어진 건 하지만 덩치가 큰 공작이었는데, 그가 무도장 한 복판에서 왕자를 가로막고는 '자기'가 신데렐라를 갖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자는 친구의 사타구니를 건어차는 것으로 자신의 기분을 나타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공작은 일시적으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성적 욕망 때문에 제정신을 잃어버린 다른 사내들이 당장 왕자를 붙잡았습니다. 왕자는 수많은 인간 동물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광포하게 표출되는 것을 보고, 여자들은 질겁했습니다. 하지만 싸우는 남자들을 때어놓으려고 해도 도저히 때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여자들한테는 신데렐라가 이 모든 말썽의 원인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데렐라를 에워싼 가운데, 같은 여성에 대한 동정이라고는 전혀 없이 적대감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데렐라는 달아나려고 했지만 실용성과는 동떨어진 유리 구두를 신고 있어서 도망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행한 일이지만, 다른 여자들도 불편한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탑의 시계가 자정을 알리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종이 열두 번 울린 순간, 신데렐라의 아름다운 드레스와 신발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촌스러운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계모와 의붓언니들은 이제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입장이 난처해질까봐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자들은 이 마술적인 변신에 깜짝 놀라서 조용해졌습니다. 드레스와 구두의 속박에서 해방된 신데렐라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면서 기지개를 켜고 옆구리를 득득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면서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자, 원한다면 나를 죽이세요,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죽을 거예요."

그녀를 둘러싼 여자들은 또다시 셈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데렐라에게 앙갚음을 하는 대신, 그들은 고래수염으로 몸에 꼭 끼게 만든 조끼와 코르셋과 구두를 비롯해서 몸을 꼭 죄고 있던 옷가지를 모조리 벗어 던졌습니다. 마침내 속박에서 해방된 그들은 완전한 기쁨에 겨워 속치마만 입은 채 맨발로 춤을 추고, 팔짝팔짝 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성적 파괴의 춤에 열중에 있는 남자들이 고개를 들었다면, 정숙한 여자들이 마치 침실에 있는 것처럼 호트러진 옷차림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서로 때리고 주먹을 날리고 발로 건어차고 할퀴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한사람도 남지않고 모두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여자들은 혀를 찼지만 연민의 정은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궁전과 왕국은 이제 그들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 취한 공식 조치는, 그들이 벗어던진 옷들을 죽은 사내들에게 입힌 다음, 왕자와 그의 친구들이 여장 취미가 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누군가가 협박하는 바람에 싸움이 일어났다고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취한 두번째 조치는, 여성들을 위해 편안하고 실용적인 옷만 만드는 의류 협동조합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신더웨어(신제품 의복의 브랜드 이름)'를 광고하는 간판을 성위에 세웠고, 자주적인 결정과 현명하고 독창적인 마케팅을 통해 모두 -- 심지어는 신데렐라의 계모와 의붓언니들까지도 --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속박에서 해방된 그들은 완전한 기쁨에 겨워 속치마만 입은 채 맨발로 춤을 추고, 팔짝팔짝 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편집후기

나는 정말이지 어떻게 남편의 책을 만든 적이 없었어 아니다. 매일 회의를 낼 때마다 단지 내가 편집을 할 수 있다는 여
유만으로 남편이, 나 혼자서 편집을 신경써야 했었다. 즉, 헤어지겠다고 각 편지씩 메기고 차례 만들..... 장난이 아니다. 그렇게
할 때엔 항상 영어 생략이 난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다른 일들엔 편집을 시켜곤 했었다. 그 결과는 지금도 내가 참치하게 생각
하고 있는 것이지 내로남불 2호 회자가 있다.

어쨌든 남편의 책을 내게 되었다. 아~ 물론 내가 원고를 한 것이 아니고, 남편 편집이다. 거기다 어쩌면 50% 정도 편집했다.
어쨌든 남편의 책은 영어도 생략하면, 그날로 여의방을 찾아서일 것이다(공자의 책수의 의미는 몰라??) 내 책이라더니만 온갖 영어
어휘사전을... 그리고 보니 남편의 여자가 적어놓은 남편말이었다.. 하~)

시간이 여력이 없다. 마지막 서울대행 열차를 타고 언젠가 집에 들어갈때까지 시간이 정말 없다. 그러나~ 왔을 꼭 집에 들어
가야 할 것이다. 음. 여가 시간이다. 마지막 열차를 타면 12시가 넘어서 집에 도착하니.. 어쨌든 왔도 외박을 한 셈이 된다. 하
여론 또한한 책을 혼자서 얼마나 보낼지 싶다. 그리고 언젠가까지 글을 하고 싶다. 한창에서 슬퍼대고 할 문제가 너무 많다. 다시는
5호선을 타고 상동역에 가지 않겠다.

내일엔 영어 10쪽 짜짜일 것이다. 음 다음엔 또 다른 평가점을 편집해야 한다. 그때는 좀더 자신감있게 좋은 평가점을
만들어야겠다. 많이 쓴다고 좋아가 느껴지는 것 같다. 그때!!! 내 책이름을 쓰겠다!!!!!! 하~ 내 나옴 무자!!

나는 어떻게든 내가 그의 목숨이 그렇다

난 좋아다...

현재 시간 대강 새벽5시... 지금 막 부시시 일어나서 한 편집이다. 모기가 하고 간
것의 뒤를 이어서...

오늘도 일찍 일어났다. 히~ 역시 난 새나라의 착한 어린이야...(내가 착한 어린이
인 건 확실(!)하지만, 우리나라가 새나라인지는 난 모른다.)

어제 열심히 김종서 보고는 소리지르듯 왔었다. 그리고 어제 저녁까지는 정말 좋았
는데, 그 파일이 없어져 버릴 줄이야...

난 꼭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나한테 원고 안 준 몇몇 사람들...내가 끝까지 쫓아 다
니면서 괴롭힘 깨야...

마지막으로 두마디만 남기고 싶다...

우선 김종서는 5집도 권찮다... 좀 분위기가 지금까지와는 많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정말 중요한 한 마디. **끝이다.**

여성위원회 만세!!!!

김종서의 추락천사를 듣고 있는 좋은 아이 좋아가...
나도 해볼까? 그의 목소리가 그렇다? 근데 그가 누구지? 궁금...